

**키움증권** **채권 판매**

세전 수익률: 연 2.75%

종 목 명: 하이투자글로벌펀드166

신용등급: A-(한신평, 2018.6.19)

**키움증권**

**연 2.75% 채권 판매**

키움증권은 하이투자글로벌펀드166 채권을 세전 연 2.75%에 판매한다. 키움증권에서 판매하는 하이투자글로벌펀드166 채권의 만기는 2019년 7월25일(154일), 연 수익률은 세전 2.75%이다.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이표채 방식이다. 신용등급은 A- 안정적(한국신용평가)이다.

하이투자글로벌펀드는 종합주류회사인 하이투자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하이투자로는 소주부문에 국내시장 50%를 초과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맥주부문 점유율은 30%로 시장 2위이며 발포주(필라이트)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손익지 기자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25일 투자설명회 개최**

IBK투자증권 분당센터는 오는 25일 오후 4시부터 분당구 IBK기업은행 서현역지점 6층에 위치한 대강의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명함 걸고 하는 투자설명회'를 주제로 IBK투자증권 우수 프라이빗뱅크(PB)들이 바이오 대표 종목과 향후 유망 업종에 대해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1부에서는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장현석 PB가 시장의 관심이 높은 바이오 주요 종목 및 수급개선 종목에 대해 설명하고, 2부에서는 정경민 PB가 올해 상반기 핵심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예정이다. /손익지 기자

**ValueUP Fund Report**

신영증권의 펀드 리포트 동영상 서비스를 소개하는 그래픽 이미지

**신영증권**

**펀드현황 동영상 브리핑**

신영증권이 가입펀드의 운용 현황을 브리핑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영증권은 21일 우수고객에게 밸류업(Value-up) 펀드 리포트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자산관리 서비스인 밸류업은 2017년부터 대표 펀드에 가입하고 있는 우수고객에게 인쇄물 형태로 제공하는 펀드 리포트 서비스다.

신영증권은 콘텐츠 소비방식의 변화 추세에 맞춰 펀드 리포트를 고객 입장에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동영상 형태로 제공한다. 밸류업은 6개월간의 운용 현황 분석과 투자자의 궁금증을 운영역 질의응답(Q&A) 형태로 제공해 우수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배한니 기자

**투자자, 갤럭시 폴드 수혜주 찾기 분주**

출하 매년늘어 4년내 6천만대 전망  
비에이치·삼성전기·엠씨넥스 등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 수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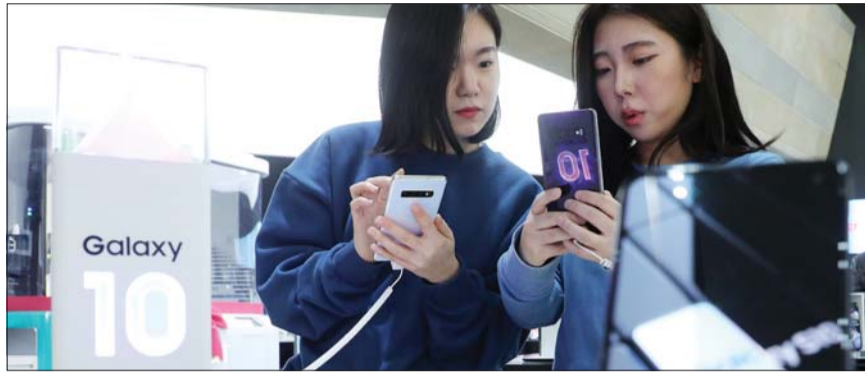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Galaxy Fold)'가 스마트폰 시장의 품팩터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포화에 다다랐던 스마트폰 관련 종목에도 단비가 예상된다.

증권업계는 21일 삼성전자의 이번 신제품 언팩 행사에서 전면 배치된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시장 카테고리를 제시해 관련 부품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20일(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당장 급증하진 않겠지만 스마트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만큼 장기적으로 관련 업체에 긍정적인 것이라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의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갤럭시 폴드의 경우 당장 올해 출하량이 100~200만대 수준으로 예상돼 절대 판매량 보다는 가격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하나금융투자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 대수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복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 대수를 2020년 900만대, 2021년 4000만대, 2022년 6000만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연구원은 "222만원이라는 가격 역시 우려 대비 비싸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아웃 폴딩 스마트폰이 나오게 된다면 가격은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폴더블 관련주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250만~300만원 수준 보다는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한 수혜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인 SKC코오롱PI, 비에이치, 삼성전기, 엠씨넥스, 슈프리마 등을 예상했다.

전통적으로 신규 제품이 출시될 때 관련 부품 시장 중에서도 새롭게 열리는 부품 시장의 독점 공급 업체가 주목받은 만큼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새롭게 채택된 PI 베이스 필름의 독점공급업체인 SKC코오롱PI의 실적에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SKC코오롱PI는 접을 수 있는 OLED 패널 하단의 베이스 필름(Base Film)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다.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 SKC코오롱PI를 주목했다.

비에이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으로 연성 인쇄회로기판(FPCB)부품을 공급한다. 폴더블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FPCB는 면적이 넓어지고, 휴대폰 형태에 따라 대량 탑재량이 증가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주민주 메리츠증권연구원은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매출은 2019년 156억원, 2020년 468억원으로 전사 매출비중의 각각 1.9%, 4.9%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리츠증권권을 비롯해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이 비에이치를 추천했다.

이밖에도 갤럭시 폴드의 지문인식 방법인 초음파식 인-디스플레이(In-Display) 관련 기업인 '슈프리마',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로 신규 수주를 받을 전망이다 'AP시스템', 다양한 플렉시블 OLED 장비군을 보유한 '디아이티', 향후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유리 커버 윈도우 기업 '뉴와이프라스마', '삼성전기'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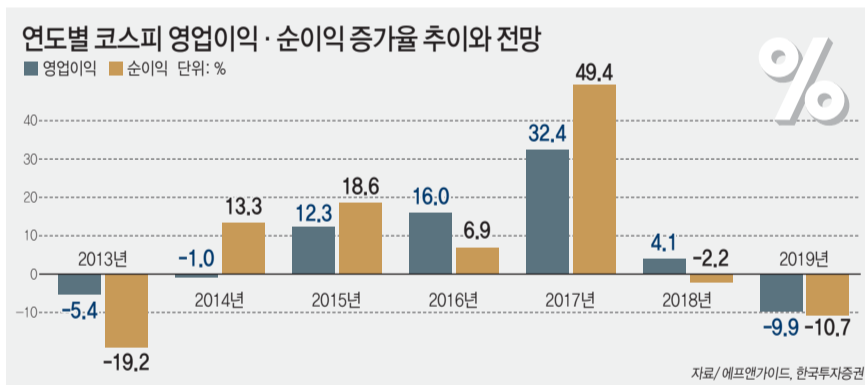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24일 화웨이도 폴더블폰을 공개함에 따라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폴더블 스마트폰의 장래가 밝다"고 전망했다.

/배한니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올 상장사 실적 '마이너스'... 외국인 담는 '옥석株' 노려야**

<코스피 영업익·순이익>

**6년만에 영업익·순익 감소 전망**  
**LGD·한국항공우주 등 노려볼 만**



상장 기업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실망 수준이다. 투자자들의 '종목 옥석가리기' 움직임도 덩달아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적 공개가 마무리되면 어떤 종목이 새롭게 상승세를 탈지 관심이 높다.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돋보였던 종목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매수세가 물리고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쌍끌이 호재'를 맞은 종목은 어닝 시즌 마무리 후 가장 먼저 주목받는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올 영업이익·순이익 감소 예상**

21일 에프앤가이드와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예상 영업이익은 183조원(-9.9%), 순이익은 125조원(-10.7%)으로 전망된다. 예상대로라면 지난 2013년 이후 6년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원인은 경기 부진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잘 말해 준다.

실적을 내놓은 484개 종목 가운데 시장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224개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은 29조원, 순이익은 15조 6000억원으로 실적발표 시즌 전 컨센서스 대비 각각 31.5%, 48.9% 하회했다. 4분기 회계처리 관행을 빼더라도 어닝쇼크 수준이란 평가다.

유안타증권 김광현 연구원은 "4분기만 되면 예정에 없던 총당금이 쌓이고, 예정에 없던 보너스가 지급되는 등 일시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회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매출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기도 하고, 매출 자체가 부진을 겪기도

한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다. 어닝쇼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어닝쇼크가 다음 회계년도 실적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이후 2019년 상반기 전방지는 -25.2% 하향 조정됐다. 특히 연초 이후 하향 조정 폭이 -14.3%로 높게 나타났다.

**◆ LGD·한국항공우주 등 외국인 매수 호재**

전문가들은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믿을 권던테넌트이 튼튼한 실적주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투자증권 안혁 연구원은 "큰 폭의 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반도체 업종과 이

익이 증가하는 비(非)반도체 업종을 구분한 이원화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잡정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10% 이상 웃도는 종목이 향후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LG디스플레이, 아이에스동서, IHQ, CJ프레시웨이, SK가스, 현대엘리베이터, 영풍정밀, 한전KPS, 서울반도체, 동원 F&B, 신세계 I&C, 한국콜마, 현대건설기계, 한국항공우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LG디스플레이와 한국항공우주는 외국인의 주요 쇼핑 대상이 되고 있다.

IBK투자증권 이정빈 연구원은 "컨센서스 순이익이 증가와 함께 자기자본이익률(ROE) 서프라이즈 비율이 양호하고 장기성 자금인 연기금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일수록 양질의 초과수익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한지주, 삼성에스디에스, LG생활건강, 한온시스템, 메리츠증권, 현대미포조선, 대웅제약, 한샘, SK머티리얼즈, 이노션 등을 제시했다.

/김문호 기자 kmh@

**LH, 올 공사·용역 1013건 10.1조 발주**

토지사업에 2.8조, 주택공급에 7.3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013건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

LH는 21일 주거복지로드맵 목표 달성,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택지공급을 위한 토지사업에 2조 8000억원(15.9%),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건설사업에 7조3000억원(7만5000호)을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발주유형은 공사부문의 경우 ▲종합심사 70건, 5조9000억원 ▲적격심사 584건, 3조6000억원이다. 용역부문의 경우 ▲적격심사 208건, 1000억원 ▲설계 공모 61건, 1000억원이다.

공공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토목공사가 각각 5조 9000억원, 1조60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3%를 차지하며 그 외 전기·통신 공사가 1조5000억원, 조정공사가 6000억원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예탁원, 전자투표 시스템 연수 '인기'**

201개 회사, 담당자 270명 참석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최한 전자투표 시스템 실무연수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전자투표(K-eVote) 실무연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연수는 주식 발행회사의 주총 담당자들에게 전자투표 실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다가올 2019년도 주주총

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개최됐다. 연수는 발행사의 전자투표 실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K-eVote 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수 종료 후에는 상담 코너에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상세한 인내가 이루어져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주총회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다.

/배한니 기자